지금 우리 양봉인의 시각이 중요하다

양봉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꿀벌과 함께 씨름하는 양봉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한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는 오늘, 주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있지만, 양봉업계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들이 함께 전개되고 있는 현실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벌꿀을 사용한 식품(소주)가공 산업 분야가 소비자로부터 높은 관심과 새로운 이미지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양봉산물의 이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선진국에서도 벌꿀을 이용한 제품들이 건강 식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양봉산물의 이용가치가 매우 값지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벌꿀을 비롯하여 로얄제리, 화분과 함께 이제는 프로폴리스까지 건강식품의 위치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완전한 자연식품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선물하는 꿀벌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편으로는 벌꿀의 품질관리에 많은 관심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 속에서 냉정한 우리의 판단이 요구되는 현실에 와 있음이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벌꿀도 수입자유화로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양봉산업을 지켜 나가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연간 우리나라 벌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어림잡아 200억 시장이라고들 말한다. 이는 벌꿀 생산 유통량을 대비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200억 유통시장의 벌꿀. 이 벌꿀의 품질관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간 탄소동위원소 검사기기 구입비용이 지금까지 15억원대가 소요되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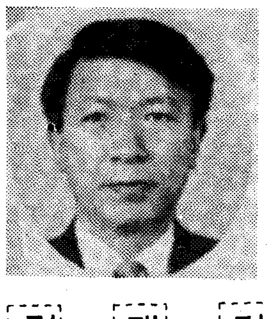
또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벌꿀 검사기기 구입비용으로 더 소모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안타깝다 못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인정받지 못하며 업계를 유지하여 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검사기기에 의존해야만 바른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하는 현실을 양봉인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한다.

값비싼 검사기기 구입의 상황 전개는 좋은 꿀 유통이 대의 명분이기는 하나 대형 식품회사 연간 껌 한 개, 과자 한 품목의 연간 매출액도 안되는 벌꿀 시장에서, 영세한 양봉 현실과 크게는 국가적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누구에게 큰 유익을 주고자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여유도 가져 봄직 하다.

내년 7월1일부터 벌꿀이 수입 자유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불량꿀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판단하는 현실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찾아내자는 것도 아닌 부분에 유통 금액의 15%에서 앞으로 20%(20억원 이상) 까지를 벌꿀검사를 위한 시험기기 구입에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을 접하면서 이 현실을 개탄하고 싶다.



김 재 길
〈본협 한국양봉산물연구소장〉

세계 어느 나라도 벌꿀검사를 위해서 검사기기 1대에 1억8천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탄소동위원소법에 의한 벌꿀 품질관리를 하는 나라가 없으며, 또한 탄소동위원소 시험을 벌꿀품질관리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벌꿀 검사만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구입하겠다는 업소와 검사기관의 소식을 접하며, 벌꿀 품질관리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온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검사기기 수출국에서는 이제 배짱으로 기기 가격도 인상하여 판매하겠다 하며 한국을 마치 불량꿀 천국이나 되며 꿀이 없으면 못사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가 보다.

벌꿀은 자연식품으로 인체에 주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먹는 식품의 위치이지 않는가.

지금, 불량 벌꿀을 정당화시켜 보자는 뜻도 불량꿀 생산업자를 보호하자는 뜻도 절대 아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벌꿀 품질관리의 제도가 잘못된 현실과 한계점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협회에서는 벌꿀 정화를 목적으로 벌꿀 검사업무를 1980년 1월부터 시작한지 이제 16년이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하여 본다면 양봉산물은 이미 정화돼 있어야 한다고 보며, 협회 연구소의 역할이 과연 중요한 역할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유통시장이 정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할말을 잃어버린다.

이유인 즉, 한 쪽에서는 열심히 양심적으로 좋은 벌꿀을 생산하겠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꿀벌과 자연과 씨름하는 양봉인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식품위생법의 법망도 우습게 여기며 노력(?)하고 있는 판매자와 제조자의 협력관계 속에서 양봉업계를 좀먹는 악덕인들이 존재하고, 법망에 잡혔다 해도 교묘히(?) 벌금 정도로 처벌받는 현실에서 양봉의 진정한 정화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연례 행사로 가짜꿀 소동을 벌려서 가뜩이나 위축된 벌꿀 시장을 소비자로부터 더욱 불신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

여기서 깊게 생각하고 짚어 볼 것이 있다.

각 소비자 단체와 국가기관에서 매년 불량꿀 고발 행사가 있어 왔으므로, 소비자가 보호받는 차원에서 불량꿀은 이제 사라졌어야 옳다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벌꿀의 유통시장은 매 한가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임을 볼 때 이는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벌꿀 품질관리 검사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불량꿀을 양산하는 업주의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의 한계성에서 불량꿀의 유통이 되풀이되는 문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방적 피해자는 좋은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가와 판매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비용을들여서 벌꿀 검사기기(탄소동위원소 분석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장을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좋은 벌꿀의 유통으로 이미 구입하여 가동중인 그 비싼 검사기기 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자연 속의 순수성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한다.

영원히 꿀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말이다.

※PC통신을 통해서 알아본다

기상재해 정부의 보상차원은 어떠한가?

▶민원요지

기상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정부에서 보상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대상 규모 및 보상 기준과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는가?

▶회신내용

▷지원목적:영세 피해농가에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의 고취,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보상 측면이 아닌 지원 측면에서 지원

▷지원대상규모:농작물 피해가 시군당 일정 피해규모 또는 일정 피해액 이상(예, 수해: 50ha이상)

▷지원기준:경지 소유규모가 2ha미만으로 농작물 피해율이 50%이상 농가

▷지원사항:농가 중고등학교 학생자녀 수업료 면제(2기분), 무상양곡,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2년간) 등

※재해피해농가는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침

▷농어업재해대책법(93. 6. 11 법률 제4555호)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94. 6.29 농림부예규 제178호)

▷풍수해대책법(90. 12. 27 법률 제4286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정지침)

▶담당과

농림부 농산기술과(전화 503-7281~3)

국가검정필
꿀벌 노제마병·부저병 전문치료제
후미딜®-B(Fumidil®-B)
후미딜®-B를 사용하는 양봉가들은
"봉충판이 노랗게 되고, 빈방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노피사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후미딜®-B는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 노제마병(Nosema apis)및 부저병(Faulbrood)의 전문 치료제입니다.
■ 꿀벌의 폐사율을 줄여 꿀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에 대한 약해가 거의 없습니다.
■ 빈방이 없는 충실한 봉충판을 만들어 줍니다.
포장단위 : 25g 판매가 : 10,000원
후미딜®-B는 사용해본 양봉가만이 다시 찾는 좋은 약입니다
고려양봉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053)424-5040·8252 FAX : 425-1310
수입원 (주)성일파마

정성들여 채밀한 아카시아꿀을
■어디에다 줄까 …
■누구에게 부탁할까 …
■결재는 잘해 줄까 …
■고민·걱정을 하셨죠 ?
이젠 이같은 고민·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좋은 꿀을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풍요로운 양봉사회를 추구하는
(주)유희자연농장
대표이사 유 희 백 (舊 유희양봉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28-7
☎(0335)34-5781·2, 34-8652
야간 : (02) 533 -1011